

## 성육신의 교훈

[성경본문] 빌립보서 2:5-11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이 마음가짐(혹은 생각)이 너희 안에 있게 하라(전통본문, KJV).<sup>1)</sup>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으라’는 원어는 ‘이 생각(KJV)과 태도(NASB, NIV)를 가지라’는 뜻이다. ‘이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리키고 그것은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가짐, 즉 겸손한 생각과 태도이다.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므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탈취물로 여기지 않으셨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셨다.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신약성경은 예수님의 신성(神性)을 충만하게 증거한다. 그 중에서 몇 구절들을 보자.

요한복음 1: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에 ‘태초에 계신 말씀’은 후에 ‘말씀이 육신 되신’ 그 분이시다. 그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시다. 그는 천지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3:13,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sup>2)</sup>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는 천국에서 내려오셨고 그의 신성(神性)으로는 세상에 계신 그 당시에도 천국에 계셨다.

요한복음 6:51,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께서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시다.

---

1) Byz Origen 등이 그러함.

2) Byz (A) it<sup>a</sup> b f1z vg syr<sup>p</sup> cop<sup>bo-pt</sup> arm Origen<sup>lat 2/4</sup> 등에 있음.

요한복음 8:58,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수께서는 성탄절 전부터 계셨다. 성탄절은 그의 존재의 시작이 아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셨다. 그것은 그가 영원하신 분임을 암시한다.

요한복음 14:9,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분이시다. 그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

요한복음 17:5,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께서는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누리셨던 아들이시다.

골로새서 1:15-16,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그에 의해]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만물은 그에 의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그는 천지만물의 창조주, 곧 하나님이다.

골로새서 2:9,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神性) 곧 신적 속성의 일부분이 계신 것이 아니고 신성의 모든 충만이 계셨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이다.

디도서 2:13,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복스러운 소망이시며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다.

히브리서 1:2-3,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

아마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요한일서 5:20,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신적 구주이시다.

**[7-8b절]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신 그가 자신을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사건이었다. 요한복음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 ‘말씀’은 요한복음 1:1에 말씀한 ‘태초부터 계신 말씀’ 곧 하나님이신 아들을 가리킨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으로 낮아지셨다.

사람이 되신 그는 하나님의 편재하심(어디에나 계심)이나 전지전능하심의 속성을 보류하셨고 그의 신적 영광을 감추셨다. 물론, 30세가 되셔서 전도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그는 간혹 그의 신성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것이 그가 행하신 기적들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것들을 그의 구주 되심을 증거하는 목적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하셨고 그 때에도 그것을 다 사용하지 않으셨다고 보인다.

사람이 되신 그는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는 자신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셨다. 그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택하신 자들을 대속(代贖)하시기 위함이었다. 마태복음 20:28,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가 사람으로 이 세상에 나신 것은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기 위함 이셨다. 그것이 성탄절의 참된 의미이다. 그러므로 참된 성탄 축하는 단지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거나 육신적 즐거움을 나누는 데 있지 않고, 모든 죄를 회개하고 구주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과 구원을 받고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 의와 선을 행하는 자가 되는 데에 있다.

갈라디아서 1:4,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셨으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히브리서 9:11-12,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10:12,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고 우리를 위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9-11절] 이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예수께서는 삼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만에 승천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셨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상급이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 10:9-10, 13,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두의 주님과 구주가 되셨다. 또 성경은 우리도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한다(롬 8:16-17).

성탄절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날이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의 시작이 아니었다. 그는 창세 전부터 계셨다. 그는 영원 전에 아버지에게서 나신 아들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곧 참 하나님이다. 그가 사람이 되셨다. 그가 자신을 심히 낮추셨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다.

그는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하신 자들의 구원이 되었다. 그가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핏값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택자들은 하나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물론 그들은 전도를 통해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또 믿는 자들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모든 교훈에 즐거이 복종할 것이다.

성탄절의 신비 속에 담긴 귀한 한 교훈은 겸손에 대한 것이다. 바울은 오늘 본문 5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었던 이 생각과 마음가지미가 너희 안에 있게 하라”고 말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자이지만, 자기를 비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의 겸손을 가리킨 말씀이다. 빌립보 교회는 믿음과 순종에 있어서 또 복음 사역에 협력한 일에 있어서 좋은 교회이었지만, 일치와 단합을 위해 한 마음이 되는 데는 부족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이런 저런 부족이 있다. 그들은 겸손한 마음가지미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일을 실천해야 했다. 어느 시대에나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덕이 필요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권면하고 격려하며 정통 교리와 분별력을 가지고 사랑의 교제가 있는 참 교회를 세워나가야 한다.